



‘이야기의 힘’

기획회의 ‘올 출판계 키워드 50’ 선정

2013 올해 출판계를 달구었던 핫 이슈는 무엇이 있었을까.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출판전문지 ‘기획회의’가 특집 ‘2013 출판계 키워드 50’에서 ‘이야기의 힘’을 대표 키워드로 선정했다.

올해 출판시장을 주도한 것은 단연 소설이었다. 서점가의 사회경제적 이슈가 약화된 상황에서 이야기의 힘은 지명도 높은 국내외 작가들의 신작 출간과 맞물려 위력을 발휘했다.

100만 부 돌파가 확실해 보이는 조정래 ‘정글만리’(3권·해냄)는 중국을 무대로 무역전장을 벌이는 젊은이들의 정글 같은 삶을 그려 호평을 받았다. 20만부가 판매된 정유정 ‘28’(은행나무)

은 역동적이면서도 치밀한 스토리가 감정으로, 등장인물의 내면을 냉정하게 그려냈다. 평가가 높았다.

무라카미 하루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무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민음사)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제3인류’(열린책들)도 작가들의 명성만큼이나 이야기의 힘을 보여준 소설이다.

이외에 신경숙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문학동네), 김영하 ‘살인자의 기억법’(문학동네), 공지영 ‘눈고 푸른 사다리’(한겨레출판), 맨 브라운 ‘인페르노’(문학수첩) 등도 베스트셀러 상위에 진입할 만큼 소설 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도서정가제 개정 추진도 올해의 키워드로 선정됐다. 지난 1월 9일 민주통합당 최

재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도서정가제의 본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상화 조치’로 풀이된다.

‘영속적인 정가제 적용’ ‘실용서 및 초등 학습참고서도 정가제 포함’ 등은 정가제 적용을 대폭 강화한 방안이다. 국회 일정이나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사재기 파동’도 출판계를 달구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다. 지난 5월 7일 모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의 폭로로 해당 작가들이 출판사와 계약을 파기하고 관련 책을 절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작가 황석영은 “출판사들의 ‘서점을 통한

도서 기증 행태’와 ‘정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할인 판매’ ‘다른 도서 끼워 팔기’와 ‘과도한 경품 증정’ 행위 등도 공개적인 사재기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소프트 인문학’의 강세도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다. 인문학의 문턱을 낮춰 알기 쉽게 풀이해주는 인문서의 출간이 늘었다. ‘올해의 인문서’에 꼽히는 주현성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더 좋은 책)과 김경집 ‘인문학은 밥이다’(알에이치코리아)는 인문학 세계를 풍성한 상상력으로 안내한다.

소설의 귀환과 쉬운 인문서의 돌풍과 달리, 상대적으로 자기계발서는 주춤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룰 수 없는 사회가 도래하면서 자기계발서 신화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

‘교과사 한국사 교과서 파동’은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영역에 휘발성 있는 논란을 일으켰다. 내용과 구성 면에서 허술한 역사 교과서는 과거로 회귀하려는 한국사회의 민낯과도 같다.

‘영원한 청년 작가’ 최인호와 한국학의 대가 김열규 교수의 타계도 출판계를 안타깝게 했던 소식이다. 또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유문화사) 등을 통해 한국형 자기계발서의 시작을 알렸던 구본형의 별세도 독자들은 안타깝게 했다.

그밖에 ‘온라인서점 매출 하락’ ‘협동조합’ ‘디지털 치매’ ‘현대사 열풍’ 등도 올해의 키워드로 주목받았다.

지명도 높은 국내외 작가들
신작 출간 위력 발휘 소설 열풍
자기계발서 주춤·한국사교과서 논란
‘도서정가제’ ‘협동조합’ 등도 관심



왼쪽부터 조정래, 정유정, 김영하, 신경숙, 최인호, 공지영,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동신여고 윤영문 교사 선정

광주시는 지난 6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로 동신여고 윤영문(53·사진) 교사를 선정했다.

윤 지휘자는 목포대 성악과와 조선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뒤 광주영여방송 소년소녀합창단, 광주북구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형위원회를 거쳐 자질과 지휘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다며 “시립예술단체 예술감독과 지휘자가 모두 위촉된 만큼 시립예술단체가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윈터 재즈 나이트’

피아니스트 김다솔 콘서트, 13일 금호아트홀

때오르는 클래식 스타 피아니스트 김다솔 콘서트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김씨는 올해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2013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돼 그 어느해보다 다양한 연주회를 통해 실력을 발휘해 왔다.

‘윈터 재즈 나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독주회의 레퍼토리는 지역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곡들이다.

피시 그레이저의 ‘피아노를 위한 콜로니 알송 쟂 멘델 1번’, 에르빈 슈호프의 ‘피아노를 위한 재즈풍의 춤곡’,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를 위한 엑서사이즈 Play piano play 중 1·4·5·6번’, 윌리엄 볼컴의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유행 레그’, 얼 와일드의 ‘조지 거쉬인 노래에 의한 비르투오소

에튀드’ 등이다.

부산에고를 거쳐 16세 때 유학을 떠난 그는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거쳐 현재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수학하고 있으며 2011년 금호아트홀 라이징 스타로 선정됐다.

퀸 엘리자베스,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 슈만국제음악콩쿠르 등에서 입상했으며 2011년 프랑스 에피날 콩쿠르에서 우승해 이름을 알렸다.

베를린방송교향악단, MDR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한 그는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 정음성곡제음악제 등을 통해 광주 클래식팬들과 만난 바 있다.

티켓 가격 일반 3만원, 학생 1만5000원.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랑나눔음악회’서 만나요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회, 오늘 남구문예회관

한달에 한번(매월 둘째주 금요일 호신대 티브라운)씩 모여 아름다운 한국가곡을 함께 부르는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회(회장 황선숙)는 연말이면 노래로 이웃 사랑을 전하고 있다.

60회 행사를 맞아 진행되는 ‘사랑나눔 음악회’는 노블담 수녀회가 운영하는 아동 양육시설 형제사를 후원하는 자리다. 9일 오후 7시 광주 남구문예회관.

이날 행사에서는 ‘얼굴’, ‘고향의 노래’ 등을 함께 부르며 박현, 나인희, 이용조, 박안수, 김조자, 이용우, 장홍식, 김건이, 유열자씨 등 16명의 아마추어 출연진들이 ‘저녁별’, ‘수선화’, ‘나의 백두산아’, ‘그리운 금강산’ 등 애창곡을 선사한다.



또 바리톤 김세선, 소프라노 이승희, 하수미(동아인제대 교수)씨가 지도하는 핸드벨 연주단 ‘종소리 모아’, 중창단 디바 레이다 심어즈(지휘 이계화) 한국무용 정성희씨 등이 찬조 출연해 정성을 보낸다. 티켓가격 1만원. http://cafe.daum.net/gjksong. 문의 010-2694-4592.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적중얼가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 352-7788, 남 676-7719, 북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